



글 열기

지연 님, 안녕하세요. 만성적으로 답장이 늦어버리는 진광이에요.

지금껏 메일을 쓰면서 꼼꼼하게 살피고 다듬어진 말들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횡설수설해도 내가 가진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답을 향하기보다 어떤 질문을 발견할 수 있는지 집중하고 싶어요.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단상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글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논리정연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잘못 읽거나 상당 부분 오해하며 소리와 글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이때 생기는 착시나 혼선의 효과 덕분에 골목길처럼 흥미로운 여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소리 덩어리들보다 더 쉽게 반응할 수 있는 작업 노트 편에서 시간을 지냈어요. 아트워크 작업 이후로는 점점 소리 덩어리들을 다양한 상황에서 들으면서 다가오는 느낌들에 집중해보기도 했어요. 제게 이 소리들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소리를 들을 때 어렵פות이 소리가 매체와 관계하는 방식을 미루어보아, 지연 님의

삶의 태도나 방식이 반영되는 듯 다가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리를 다루는 예술가 권병준은 «원일의 여시아문—이도공간»이라는 국악방송 라디오에서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전통이나 관습을 억지로 배게 하는 것보다 나 자신의 울림을 만들고 찾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명’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만약 이 음반이 시상식에서 호명된다면, 수상하러 마이크 앞에 서는 ‘나 자신’ 아니, ‘나 자신들과 기계들’로; 지연 님을 비롯한 카세트테이프, 디지털 샘플러, 공기 중 입자를 코르크 마개로 동봉한 유리병, 피아노의 해머와 페달, 마스터 테이프 릴이 단상 위에 오르겠다는 상상을 했어요.

메신저와 매체

지난 가을부터 지연 님과 지금껏 대화하면서
«투명한 음악», «piano mixtape by 11»,
«Long Decay and New Earth»의 음악과 소리들을
들어봤고; 작업 노트를 읽고 제 반응들을
적어왔었네요.

왜 이번 카세트테이프 앨범은 11이 아니고
Ji-yeon Kim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카세트테이프로 발매될 작업은,
지난 «piano mixtape by 11»과 달리 11의
디스코그래피로서 보이고 싶은 연속적인 모습이
아닌, 지연 님이 축적한 그동안의 특정 주제나
명제를 탐구할 기회가 아닐까 짐작했어요.

당시에는 흐느적거리는 것, 유령이라고 불리던
소리들이 글쓰이를 어지럽게 만들고 멀미나게
했었는데, 이번 앨범 작업 노트의 글쓰이는
(제어하는 듯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와 자신의 역할을
나눠보기도 하고, 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듯
보였어요.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무리 다채로운 음향적 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음량을 고르고 음원을 정리하는 방향에
맞춰서 하는 마스터링 과정을 거치면 어떤 기준 아래
정렬되고 소거된다고 느낀다. 마스터링이라는 단어부터
의심스런 눈초리로 보게 된다. 매체의 특성이 소리에 강하게
묻어날 때 매체가 곧 소리를 마스터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표준화된 이 기준은 심리적으로도 작동하는데, 소리가
거치면 거친대로, 고우면 고운대로 각자의 고유한 음역과
다이내믹 레인지를 가진 저마다의 스피커를 갖는게 아니라,
표준화된 스피커에 각자의 소리특성을 맞추는 식의 분위기가
있다. 최종단은 늘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누구의 귀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울퉁불퉁함을 느끼기 어렵다.
그 울퉁불퉁함이 전면에 느껴질 때 그것을 감당해내가지
어렵다.

— «piano mixtape by 11» 작업 노트

지난겨울 지연 님이 보내준 위 글중 마스터링의 표
준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저는 제가 쓰는 글의
맞춤법을 떠올렸다고 답한 적 있습니다. 소리의
질감, 고유한 음역대, 다이내믹 레인지가 어떤
특정 기준에 맞춰서 디지털 매체를 거쳐 마스터링하
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지연 님의 표현을 빌려서
함축해서 달리 적자면, “표준화” 과정이) 청취 환경과
청취자의 귀를 익숙하게 만드는 동시에 길들입니다.
위글에 대한 답글을 전달하기 이전에 맞춤법 검사기
를 사용한 것도 표준화 과정으로 보았다는 내용을

글에 적었습니다. 지연 님을 처음 알게 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소리 매체보다 문자 매체와 더 많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글자로 견주어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는 표준화 과정을 부정하려고 했고, 전면적인 띄어쓰기 거부(한글은 모아쓰기 구조라서 띄어쓰기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호흡에 따라 띄어 써도 읽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사투리 채록하기, 의성어의 문자 표현 또는 번역 과정의 손실과 같은 주제들이 표준화 과정을 비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런 주제에 크게 마음이 움직인다기보다는 마스터링이나 맞춤법·띄어쓰기 규정과 같은 표준화 과정을 전면적으로 뒤바꾸거나 부정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보려 합니다.

어쩌면 문자 매체의 물성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체하지 않고도 전달 과정에서 관습적 규율(행간, 자간, 왼쪽 맞춤 정렬, 구두점 찍기, 기타 등등)을 우회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디자이너가 표지를 디자인하는 경우를 이렇게 흐른 생각의 단편적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디자이너는 필요한 정보를 표기한 글자를 짧은 호흡으로 끊어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구두점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글자라는 이미지’를 보는 사람에게 더 부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수많은 변신과 유체이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번에도 사람들의 어지럼증 유발이 가능한 건 아닐까요? 어떤 태도일 때 기존의 표준화와 다른 방식의 표준화 과정을 잘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요?

Long Decay란 어쿠스틱 공간에서 사라지는 피아노의 디케이 음이 디지털 공간에서 긴 지속음의 드론으로 바뀌는 것을 뜻하며, New Earth란 매우 천천히 사라지는 덕분에 사라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감각과 관점이 가능해지는 토양과 같은 상태를 뜻한다.

샘플의 범위와 단위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었다. 원본과 복사본, 음반과 머티리얼,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와 히스의 경계가 희미해진다고 느껴지는 그 감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 경계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작용의 과정에 흥미를 느꼈다.

— «Long Decay and New Earth» 작업 노트

실재 공간에서 공기를 통해 흩어지다 사라지는 피아노의 디케이 음이 여러 매체와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매질 없이 그대로 지속 가능해진 드론음으로 변환했다는 사실은 제게 잡음, 신호, 손실량과 같은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직 신호와 잡음의 구분에 대한 흥미나 특별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소리와 매체를 떼려면 뗄 수 있겠다는 인식이 강화되었고, 내가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지 못한 다른 간극들을 나중에 알게 되는 장면을 잠깐 상상하게 만듭니다.

공기 중에서 움직이던 소리가 녹음된 이후부터 형태와 기능이 각자 다른 매체들을 통과하면서 (또는 거쳐가면서), ‘머티리얼’이라고 불리는 다른 형태를 갖춘다(‘다른 형태를 갖추다’를 영단어로는 transform을 선택하고 싶습니다)는 점이 제게는 중요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을 이루는 ‘물질’을 영어로는 머티리얼 material이라고 합니다. 비물질에서 물질로, 비존재에서 존재로, 무에서 유로, 생명은 어머니의 자궁을 걸쳐 물화합니다.

이때 자궁은 매트릭스 matrix라고 합니다.

매트릭스는 또 ‘행렬’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요.

행과 열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구성은 그 위의 한 점이라는 존재의 조건이 됩니다.

머티리얼과 매트릭스는 모두 라틴어로 어머니라는 뜻인 ‘마테르 mater’에 어원을 둡니다.

한편, 어떤 물질이 그 물질이기 위한 고유의 특성은

유전자라던가 원자가 배열된 어떤 패턴 pattern에 의해

결정됩니다. 패턴은 라틴어로부터 아버지라는 뜻인

‘파테르 pater’로부터 왔습니다.

— <https://blog.naver.com/pamina7776/50193707555>

머티리얼과 패턴의 어원에 대한 윗글을 읽으며 저는 머티리얼과 패턴을 성 관점으로 살피는 것이 흥미로웠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덧붙여, Long Decay로 은유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의 ‘머티리얼’ 소리들이 —이전에는 언뜻 해체적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라져 가는(또는 사라져 갈) 것들을 포획해서 재구성한 물질로 다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다형적으로 흐르는 시간들이 묵직하게 움직여서 존재감을 감지할 수 있다기보다 각자만의 고유한

재생 시간을 가지고 있는 개별의 소리 덩어리들이
포개어지는 overlaying 모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카페 언플러그드 공연을 마련할 때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청취자에게 들리는 소리가
공기를 매질로 해서 확산하는 피아노 소리를 녹음해
두고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마스터 테이프를
거쳐서 관객과 마주 앉았던 공연장에서 디지털
샘플러를 통해서 나오게 됐다는 과정을 공연
만들기에 반영한다면,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각을
유발할 청취 환경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New Earth’라는 새로운 단계를
연주할 공연장이 어떤 모습일 때 소리와
호응할 수 있는지 문득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사라지는

지연 님이 디케이 음을 드론음으로 변환함으로써
유기물적인 소용돌이(머티리얼)에 의해 원본으로서의
음반을 부식시키는 과정을 그렸다는 것이 정말
참신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머티리얼, 사라지는 피아노 음, 히스,
카세트플레이어와 카세트에 의한 앰비언스,
디지털 공간에서 길게 지속되는 드론음 등을
살아있는 것, 부식하는 동시에 유기물의 소용돌이에
덮이는 것과 연결 짓게 되었나요? 언젠가부터 이런
사고 회로를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었나요?

아무래도 제게는 ‘부식’, ‘사라지는’과 같은 표현이
마음에 남는 것이 이런 글쓰기의 주요 동기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저는 비유적 표현과 사실을
적은 표현을 구분하지 않는 채로 지연 님의 이번
작업 노트를 읽고 있고, 꽤 단일하고 전체론적인
관점으로 면면들을 파악하려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나 해러웨이가 적은 앤디 골즈워시
Andy Goldsworthy의 작업에 대해 설명과
지연 님의 작업을 연결 지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둘이보이지 않는 곳에서(심지어 보여도 작아서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끼, 산소, 물, 미생물,

균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산소와 결합해서
부식하는 모습; 부산물이 쌓이는 모습; 쓰러지는
모습; 사라져가기 때문에 유한할 수밖에 없는
모습에서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예술과 공학 engineering은 반려종끼리를 관계시키는
실천들 중에서도 혈연관계의 형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인간과 지형의 커플링은 반려종의 카테고리에는
쉽게 잘 맞고, 개와 인간의 영혼을 결합시킨 수많은 역사나
상호관계에 관해서, 모든 질문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
스코틀랜드 출신의 조각가 앤디 골즈워시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를 꼭 빠지게 한 것은 살아있는 식물이나
대지, 바다, 얼음, 돌 속을 흐르는 시간의 척도나 유동이다.
골즈워시에게 토지의 역사는 살아있다. 게다가 그 역사는
사람, 동물, 흙, 물, 바위의 다형적인 상호관계에 의해
성립되고 있다.

그의 작업척도는 여러가지여서 조각을 할 수 있는
얼음의 결정에 작은 나뭇가지를 섞어 넣는 것으로부터,
만조 시에는 파도에 씻기는 조간대에 만들어진 사람 하나
정도 크기의 바위의 원뿔군, 게다가 전원지방에 지어진
장대한 돌벽에까지 이른다. 골즈워시는 중력이나 마찰이란
힘에 관해서, 엔지니어적이고 동시에 예술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조각은 수초 밖에 유지되지 않은 것도
있는가 하면, 몇 십년이나 되는 시간을 버티는 것도 있는데;

죽어야 할 운명 immorality과 변화 change가

의식 consciousness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다.

변천 process과 소멸 dissolution은—그리고 생물 및 비생물의
행위체 agency는 물론, 인간 및 비인간의 행위도—단지 그의
주제 theme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파트너이고,
소재인 것이다. (...)

이러한 죽어야 할 운명을 진 유한의 유동—그것은 결국
이종으로 된 관계성이어서 ‘인간=남성’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다—속에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골즈워시의 예술에 언제나 들어있다. 그의 예술은
어떤 토지의 종별화된 인간거주에 꼭 들어맞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중심주의적 humanist인 예술도,
자연중심주의적 naturalist인 예술도 아니다. 그것은
자연-문화의 예술이다. 거기서는 분석의 최소단위는
관계 relation이고, 그것은 결국 모든 척도 scale에 있어서의
중요한 타자성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윤리적인,
혹은 더 좋은 모양에서의, 주의 방향의 양식이고, 사람과 개의
긴 공서(共棲)에 접근할 때 소홀함이 없는 태도이다.

— 13~16쪽, 『반려종선언』, 다나 해러웨이, 최유미 옮김;

— 22~25쪽, 『The Companion Species Manifesto: Dogs, People,
and Significant Otherness』, Donna Haraway, Prickly Paradigm
Press Chicago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음반 «투명한 음악»에 같이 실은 짧은 글과 이번 작업 노트에 적힌 표현 ‘전경’, ‘배경’에 대해 이전에 막연하게 궁금했던 지점을 이번 기회에 더 구체적으로 적어봅니다.

저는 “투명한 매개물”이 다른 존재를 드러나게 해 주는 것을 끄덕입니다. 하지만 배경이나 전경이라는 용어가 적힌 문장을 자연이 능동적인 생태계보다 납작한 이미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앨범에 대한 글 중 ‘뚜렷한 전경이 배경으로 바뀌는 것’은 심리적인 묘사로 읽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연과 정서적 교감이 원활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적막

1 적막하다: ‘외로움’의 농도가 가장 짙은 상태. 적막함은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다. ‘허전함’이 잡았던 것을 놓친 손이라면, ‘공허함’이 휘둘렀던 손의 무상함을 응시하는 마음이라면, ‘적막함’은 손을 잘라 떼어낸 ‘몸’이다. 모든 순간, 모든 사물들이 감옥처럼 늘 에워싸다. 그것도 좁은 반경을 그리지 않고, 멀찌감치에서, 황량할 정도의 거리를 두고서. 죽음처럼 싸늘한 온도를 지녔지만, ‘적막’은 온도를 순치하기 위하여 순간순간을 뜨개질한다. 걷는 걸음걸이로써, 혹은 들이쉬고 내쉬는 한숨 같은 호흡으로써. 그럼으로써 영속된다.
— 100~101쪽, 「적막하다」의 일부, 『마음사전』, 김소연, 마음산책

2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미치는 곳보다 좀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면, 우리의 감지력의 망루(望樓)를 지나 좀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슬픔들을 우리의 기쁨을 대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신뢰로 참아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픔이란 무언가 새로운 것, 무언가 미지의 것이 우리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들의 감정은 어쩔 줄 모르는 당혹감 속에서 입을 다물고,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은 뒤로 물러서고, 적막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것이 그 적막의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 81~82쪽, 여덟 번째 편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라이너 마리아 릴케, 고려대학교 출판부

달는 글

처음 저는 이 음반의 공연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글쓰기가 유용하리라 판단했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고, 그게 글과 글줄 사이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가늠한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음률적인 음악도, 드럼 앤 베이스도, 문학적인 음악도, 오리지널리티가 배어 나오는 소리들도 매료된 적이 있는 스스로가 이제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미심쩍기도 합니다. 마치 무리가 둘러앉은 곳에 인사하며 들어오긴 했지만, 어딘가 편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땀 들이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의 처지입니다.

심지어 저는 저와 반대되는 입장에 반론하지 않고 끄덕일 수도 있겠고, 제가 해보지 않은 생각도 동의할 정도로 교감할만한 삶의 경험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앞으로 내가 머무른 데에서 벗어나서 움짤대는 환경과 상황에 많이 다가가야겠다 싶었습니다.

넓게는 음반이나 작업 전반에 대한 리뷰를, 좁게는 이 음반에 제작과정이나 매체들을 통과하며 소리가 변형되는 현상에 대해 기계비평가 이영준에게 의뢰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술이나 매체에 대해 역사적인 관점에서 흥미로운 글을 적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기계 비평에 대한 동영상에서 ‘문화 행위’를 살아가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실천의 행위와 양식이라고 설명했더라구요. 기계와 기술의 문화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위 설명을 듣고 떠오른 제 제안이 부디 주제 넘는 참견이 아니길 바랍니다.

답장을 바라지 않고 쓴 글입니다. 만나서 조금 정처 없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3월 16일

진광 드림

다양한 시공간에서 움직이는, 새로운 감각과
관점이 가능할 때에 대해서

2020. 3. 16. 월요일

진광

구글 문서, 텍스트 편집기